

섬·해안 건설공사 과다계상·설계변경 수두룩

전남도, 도로·항만 민간합동 감사... 13건 적발 7억 감액

전남도내 섬·해안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로, 해양·항만, 상하수도, 관광지 개발 등의 건설현장에서 관리감독이 허술한 가운데 공사비를 과다계상하거나 관련 품질 기준을 어긴 채 시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7일 “품질관리가 취약한 섬·해안을 접한 시·군의 5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감사기관과 함께 감사를 실시한 결과 13건의 문제점을 적발해 7명을 훈계 등 신분상 조치하고 7억3500만원을

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연도교 건설공사 중인 A업체는 중복 반영하는 방법으로 7791만원을,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실시중인 B업체는 필요도 없는 ‘동상방지층’을 설계에 반영해 7496만원을 각각 과다계상했다.

C업체 역시 책임감리용역이 허술한 틀을 타 과다계상한 4082만원을 그대로 설계에 반영했고, 관광지 조성사업 토목공사를 맡은 D업체는 필요 없는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한다며 7355만원을 과다 설계

하기도 했다.

또 상하수도 공사를 맡은 E업체는 품질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기관에 시험을 의뢰하고, 그 횟수를 늘렸으며, 필요없는 시험을 추가해 2500여 만원을 낭비했다.

하천공사를 하면서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잘못 선정해 3000여 만원을 더 쓰거나 필요도 없는 시설을 추가해 4400여 만원을 추가한 F업체도 모두 공사비 감액 조치를 받았다.

전남도는 도로 공사현장 4곳(2억7125만원 감액), 해양·항만공사현장 3곳(9941만원 감액), 상하수도 공사현장 1곳(3678만

원 감액), 하천 공사현장 1곳(4623만원 감액), 관광지 공사현장 3곳(1억8287만원 감액), 택지·건축 공사현장 1곳(9866만원 감액) 등 13곳에서 과다 설계, 품질·시공관리 소홀, 설계변경 소홀 등의 문제점을 적발했다.

전남도는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각 시·군에 과다계상된 금액의 감액과 함께 책임감리인에게 경고, 훈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번 감사에는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15일간 공무원 5명, 민간 전문감사관 15명 등 감사인력 20명이 투입됐다.

중 침몰 유람선 인양 442명 사망·실종

중국 양쯔(揚子)강 유람선 침몰사고가 440여명의 사망·실종자를 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신중국 건국 이후 최악의 선박참사 가 됐다.

중국 당국은 침몰사고 발생 열세째인 지난 6일 강 위로 끌어올린 침몰선 ‘동광즈싱’(東方之星)호 내부에 대한 최후 수색을 벌였다. 내부수색에는 선박 전문가와 군부대 소속 의료인력, 방역대원, 시신수습팀 등 860명이 동시에 투입됐다.

이들은 선체에 올라 생존자를 찾는데 주력했으나 곳곳에서 마주친 것은 이미 숨진 승객들의 주검뿐이었다. 마지막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참담한 순간이었다.

이날 수색에서는 침몰 유람선에 탔던 승객 중 나이가 가장 어린 3세 여자 어린이의 시신도 발견돼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중국 당국은 선박 수색을 마친 뒤 언론발표를 통해 이날 수색에서 시신이 대거 발견되면서 이번 침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96명, 실종자가 4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연합뉴스



침몰 유람선 내부수색 중국 유람선 사고 수습요원들이 7일 후베이성 쟈리현 사고현장에서 인양된 ‘동광즈싱’(東方之星)호 내부를 수색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운영한다

이해관계 직무회피·인사청탁 금지 등

전남도의회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인사청탁 금지, 금품수수 제한, 국내외 활동제한 등을 담은 의원 행동강령을 조례안으로 제정·운영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5일 전남도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



송형곤 운영위원장

결을 회피해야 하고,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직위를 이용하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또 직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연계를

행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직무 중에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돕거나 재산상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가서비스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의회 내 선거 등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당선되더라도 무효가 된다.

이와 함께 다른 기관 단체로부터 돈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할 수 없고 외부강의

나 회의 등은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서는 안 되고 통상적인 관례를 벗어나는 금품을 받아서도 안 된다.

전남도의회는 이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학계와 법조계·언론계 등 7~9명으로 의장 직속의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송형곤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조례안이 운영위를 통과한 만큼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시내버스 송정 33번·송암 68번 신설

다음달 말 증편 운행

광주시는 “8월부터 송정 33번, 송암 68번 노선이 신설·운영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호남선 KTX 개통과 효천2지구 및 하남2지구 신규 택지 입주에 따른 주민의 교통 서비스 증진을 위해 2개 노선을 신설했다.

주요 운행구간을 보면 송정33번은 하루 6대가 투입돼 첨단지구, 수완지구, 하남2지구, 송정역까지 총 18.3km를 25~35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송암68번은 하남2지구, 시청, 터미널, 서구청, 월

산지구, 남구청, 효천2지구로 총 25.4km를 하루 8대 28~34분 간격으로 운행하게 된다.

특히 신차가 추가 도입되는 오는 7월 말부터는 송정33번의 경우 1일 18대가 투입돼 10~15분 간격으로, 송암68번은 1일 17대로 늘어 12~16분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는 시내버스 전면 노선 개편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시민들이 이용하기 더 편리한 대중교통시스템 구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성 리스트’ 홍문종 오늘 소환

檢, 김기춘 등 정치인 6명 서면조사 마쳐

성원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성 전 회장과 금품거래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을 8일 오후 소환 조사한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서면조사를 받은 리스트 속 정치인 중 1명을 내일 오후에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홍문종 의원이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의 서면조사를 받은 리스트 속 정치인은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춘·하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 6명이다.

리스트 속 정치인 8명 중 검찰에 직접 소환되는 인물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이어 홍 의원이 세

번째다.

앞서 특별수사팀은 이미 기소 방침이 세워진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제외한 6명을 상대로 성 전 회장과 금품거래 의혹에 관해 서면조사를 벌였다. 홍 의원의 경우, 서면조사만으로는 의혹을 규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직접 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회장은 지난 4월 사망 전 언론 인터뷰에서 “2012년 대선 때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가 (캠프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았다. 제가 한 2억원 정도 현금으로 줬서 조직을 관리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별수사팀은 홍 의원을 상대로 과거 성 전 회장과 여러 차례 만났던 것은 어떤 목적에서인지,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닌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박명진 서울대 명예교수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박명진(68·사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를 신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나주의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용·관리하며,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및 국제 문화예술 교류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박 신임 위원장은 경기여고와 서울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한 뒤 프랑스 니스 대학과 프랑스 파리3대학에서 각각 석사와 박사학위를 마쳤다.

1980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에서 영상문화를 비롯한 문화연구(Cultural Studies)를 강의하고 연구하다가 재직년 3월부터 현재



박명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

까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로 재직해왔다.

교수 재직기간 제1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을 비롯해 정부 부처 20여 개 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학계와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동했다.

또 ‘이미지 문화와 시대 쟁점’, ‘얕은 언어와 두꺼운 언어’ 등의 저서를 집필했고, ‘한국사회의 문화향유체계’, ‘새로운 예술론 : 21세기 한국문화의 전망’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임기는 오는 9월부터 2018년 6월 8일까지 3년간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60주년 호남예술제 새싹그리키 대회

접수기간
2015. 6. 9(화) ~ 6. 12(금)

문의
062-220-0541
http://art.kjmedia.co.kr

개요 | 작품 공모

- 대상 : 전국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 시상 : 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 결과발표 : 2015년 6월 25일(목) 호남예술제 홈페이지(http://art.kjmedia.co.kr)에 발표
- 작품크기 : 8절(개인 용지 사용가능)
- 주제 : 제한 없음

참가

- 참가비 : 7,000원(20명 이상 단체할인 4,000원)
- 접수처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금남로 2가)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새싹그리키축제 담당자 앞

유의사항

- 출품된 모든 작품의 판권 및 저작권은 광주일보사에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 우편접수 시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상태에 유의하시기 바람.
- 본인의 작품이 아니거나 심사대상에 결격사유가 인정될 시 심사에 제외됨.
- 공지내역 외 일반적인 대회요강에 준함.

주최 **광주일보사·(사)아시아문화**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목포시** **나주시**